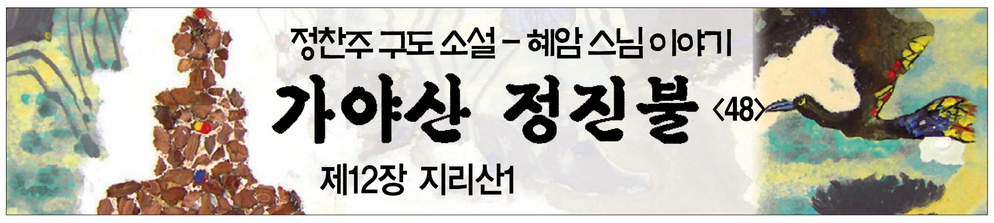
과거 들먹이지 마라 과거는 이미 사라지고 없는 것



대연 거사는 혜암스님이 머문 지리산과 태백산 중에서 어느 곳을 먼저 갈까, 하고 망설였다. 지리산에는 혜암스님이 정진한 세 곳의 암자가 있었다. 보조국사가 깨달음을 얻었던 상무주암과 혜암 스님이 천신만고 끝에 창건한 문수암, 일찍이 조선시대 중기에 청매조사가 주석했던 암자를 복원한 도솔암 등이었다. 그리고 태백산에는 선객들이 최고의 명당으로 쳤던 각화사 동암이 있었다. 동암은 금봉암이라 불리기도 했다.

그런데 대연 거사는 왠지 지리산으로 마음이 끌렸다. 자신의 공방에서 거리가 가까운 이유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지리산의 유장한 산세가 늘 눈에 어른거렸기 때문이었다. 더욱이 며칠 전 강진 백련암으로 가 혜암 스님의 상좌 여연스님을 만나 차를 몇 잔 마시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여연스님과 나눈 다담 중에 혜암 스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상무주암에서 수행했던 처절한 일화가 잊히지 않았던 것이다.

대연 거사는 마천면 농협마트 마당으로 오전 9시 30분까지 도착했다. 산길을 안내해주기로 한 정견 스님과 만나기로 이미 약속해 두었던 것이다. 정견 스님은 아직 보이지 않았다. 농협 마트 마당에는 주차된 차가 한 대도 없었다. 불화를 그리는 도행 스님의 소개로 만났는데, 정견 스님도 역시 혜암 스님의 상좌였고 도솔암을 복원할 때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한 선객이었다.

대연 거사는 정견 스님을 기다릴 겸 농협마켓 안으로 들어갔다. 문득 암자 불단에 과일이라도 올리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였다. 과일을 고르고 있는 동안 어느새 정견 스님이 다가와 말했다.

"안녕하십니까. 많이 사지 마십시오."

"정견 스님이시군요. 불단에 올리려고 하는데 무슨 과일을 사야 됩니까."

"산길을 오르기 힘드니까 사과나 배 같은 것으로 몇 개씩만 사십시오."

세 군데 암자 불단에 올리려면 적어도 사과나 배를 9개씩은 사야 했다. 정견 스님이 랩으로 포장된 사과와 배를 골라 계산대로 가지고 갔다. 그 사이에 대연 거사는 스님용 음료수로 요구르트 묶음을 서너 개 샀다.

"눈이나 비가 좀 와야 합니다."

그러나 도행 스님은 달리 말하며 호탕하게 웃었다.

"가뭄 탓도 있지만 나무들은 겨울 날 준비가 끝난 것 같습니다. 자기 몸 안의 수액을 뿌리로 내려버리거든요. 비워버린다 이겁니다. 사람도 비워야 합니다. 욕심을 채우려고만 하다가는 재앙을 만나거든요. 하하하."

상무주암 마당 앞의 샘도 말라 있기는 마찬가지였다. 암자로 들어가 불전에 사과와 배를 놓고 두 스님이 삼배했다. 대연 거사도 뒤따라 했다. 그리고 난 뒤 암주인 현기 스님에게 절했다. 정견 스님이 현기 스님에게 인사의 말을 했다.

"스님, 날이 좀 가문데, 상무주암 형편은 어떻습니까."

"무를 묻으려고 사람 키만큼 땅을 파보았지만 땅속에 물기가 없어요. 이런 가뭄이 계속된다면 재앙이 오지 않겠습니까."

현기 스님은 생태계의 파괴를 염려하며 산에 자라는 나무들의 고사(枯死)를 걱정했다. 대연 거사도 인사의 말을 했다.

"스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기잡니까. 기자들은 내게 무슨 말을 들으러 오지만 나는 탐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내 얘기를 글로 쓰지 말아야 합니다. 글이란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대연 거사는 현기 스님이 왜 자신을 기자로 보는지 의아해 했다.

"저는 도예갑니다. 스님께서 어느 책에선가 상무주란 부처님도 발을 붙이지 못한다는 뜻이고, 나무는 한 생이지만 숲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한 것이 생각납니다."

"내가 그런 말을 했던가요. 지금 생각해 보니 틀린 말입니다. 언어는 성색을 좇습니다. 성색이란 그림자입니다. 그러니 언어로 표현한 것은 여여한 것이 아닙니다. 숲은 여여일 뿐입니다."

유발상좌인 듯 머리를 깎지 않은 젊은 거사가 차를 돌렸다. 공양주보살이 떡과 과일도 내왔다. 대연 거사는 차를 마시며 말했다.

"스님, 스님께서 과거에 하신 말씀을 지금 정정하시니 그것만으로도 여기 온 보람이 있습니다."

대연 거사 일행 지리산 상무주암 도착

현기 스님으로부터 혜암 스님의 수행담 들어

밖에는 도행 스님도 도착하여 환하게 웃고 있었다. 정견 스님이나 도행 스님이나 사륜구동의 차를 운전하고 다니는 것을 보니 '지리산에 사는 스님들이구나!' 하는 느낌이 새삼스럽게 풍겨왔다.

대연 거사와 도행 스님은 정견 스님의 차에 탔다. 마천에서 영원사 입구까지는 길이 잘 닦여져 차를 이용할 수 있었다.

"스님, 상무주암에는 지금 누가 살고 계십니까."

"현기 스님이 정진하고 계십니다. 상무주암에 계신지 10년도 넘었습니다. 산중암자만 사시는 분으로 세상에 잘 나서지 않는 선지식입니다."

그러자 옆에서 가만히 앉아 있던 도행 스님이 말했다.

"암자가 살기는 좋지요. 부처님 법음 같은 바람소리만 듣고도 하루가 지루하지 않습니다."

정견 스님도 한 마디 했다.

"혜암 스님께서는 절대로 혼자 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너 명 뜻이 맞는 사람끼리 정진하기에 암자처럼 좋은 곳도 없습니다."

산길은 가파른 데다 낙엽이 덮여 미끄러웠다. 초입부터 경사가 심해 대연 거사는 금세 숨이 차고 다리가 뻑뻑했다. 그러나 산사람이 다 된 정견 스님과 도행 스님은 비호처럼 앞서 올라갔다. 대연 거사는 뒤쳐진 채 걸었다. 며칠째 비가 오지 않은 날씨 탓에 골짜기 물은 말라 있었다. 목을 축이고 싶었지만 옹달샘도 바닥이 드러나 보였다. 앞서 가던 정견 스님이 대연 거사를 기다렸다가 말했다.

"원래 상무주암 쪽은 물이 많은 곳이 아닙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산길에 흙먼지가 날릴 정도입니다."

산 위로 올라갈수록 더욱 가을가뭄이 느껴졌다. 솔잎들이 푸른빛을 잃고 잣나무 잎처럼 흰빛을 띠고 있었다. 아직 떨어지지 못한 활엽수들은 하나같이 오그라들어 있었다.

"스님, 이곳은 가뭄이 심한 모양입니다."

"자꾸 과거를 들먹이지 마세요. 과거는 이미 사라지고 없는 것입니다. 기억도 마찬가지입니다. 잊어버리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 앞뒤가 어디 있습니까."

일행은 잠시 침묵했다. 현기 스님이 자꾸 대화를 잘라버리기 때문이었다. 또한 스님의 말씀에 일행은 갑자기 주눅이 들어 대꾸도 못했다. 현기 스님은 꼿꼿한 자세로 앉아 어느새 법문을 하고 있었다.

"성색을 좇지 마세요. 언어만 성색이 아니라 권력, 명예 같은 것도 성색입니다."

현기 스님은 상무주암에서 체험한 것을 예로 들었다. 상무주암 창문에 나무 그림자가 어리면 새들이 자꾸 날아와 낙상하는데, 새가 나무 그림자를 좇는 것과 사람이 성색을 좇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경책했다.

일행 모두가 비로소 바르게 앉아 스님의 법문에 귀를 기울였다.

"관음신앙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불문문(不聞聞), 무설설(無說說)이 관음신앙입니다. 보지 않고도 보고, 설하지 않고도 설하는 것이 관음신앙입니다. 도는 밖으로 구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현기 스님은 옛 스님의 얘기를 또 예로 들었다. 암자에 사는 노승이 학인에게 '무엇 하러 왔느냐'는 물음에 학인이 '스님을 뵈러 왔습니다'라고 대답하자, 노승이 '왜 신발을 닳게 하느냐'고 꾸짖었다고 한다.

"옛 스님이 하고 싶은 말은 학인의 신발을 닳지 않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즉 무설설 불문문을 말하고자 한 것입니다. 도는 밖에서 구하지 않고 설하지 않는 설함에, 듣지 않는 들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대연 거사는 깔깔한 현기 스님의 정곡을 찌르는 법문의 매력에 빠졌다. 현기 스님 또한 고개를 끄덕이며 듣는 대연 거사의 태도가 마음에 들었던지 '믿음'에 대해서도 스님 나름대로 정의를 내렸다.

그림 · 최문정

" 신도들에게 법문하신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공부 시키려고 한 것이지 살림살이 걱정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

"믿으면 부처님이 있고, 믿지 않으면 부처님은 없습니다. 부처님이 없는 세상을 말세라고 합니다."

현기 스님의 독특한 해석이었다. 말세를 시간의 개념으로 말하지 않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해석하고 있었다. 선(禪)도 마찬가지라며 법문을 계속했다.

"선이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서 바로 들어가는 것이 선입니다. 수행이란, 자세히 들여다보면 믿음의 순도를 높여가는 것입니다."

유발상좌가 맞장구를 쳤다.

"믿음의 순도가 100%라면 깨달음의 필요충분조건은 이미 갖추어진 것이겠습니다."

대연 거사도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스님, 믿음의 순도를 높이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빼기를 하십시오. 참선은 빼기입니다. 불교의 지혜는 빼기입니다. 자꾸 더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빼기는 곁가지를 자르는 것이기도 합니다. 살인검 활인검이듯 자르고 죽이는 것이 불교의 지혜입니다."

정견 스님도 묵묵히 듣고만 있다가 질문했다.

"믿음에서 바로 들어가는 것이 선이라면 교(敎)는 무엇입니까."

"교는 닦고 난 뒤에 받는 것입니다."

현기 스님의 대답은 단호하고 명쾌했다. 그러나 대연 거사는 솔직히 알쏭달쏭했다. 스님이 구사하는 용어는 현란하지 않고 쉬웠으나 그 뜻은 심오하기만 했다.

"수행자나 예술가는 천애고아가 되어야 합니다. 더 뺄 것이 없는 고독한 사람이 되어야만 수행하는 데 고생을 덜합니다."

도행 스님이 화제를 바꾸었다.

"스님, 태백산 동암에서 혜암 스님과 정진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1970대 중반이었을 겁니다. 혜암 스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큰스님은 깔끔한 분이셨습니다. 신도들을 좋아했고, 그러니 신도들도 스님을 따랐습니다. 신도들이 오면 큰방에 들게 하고 밤새 법문을 했습니다. 뒷방으로 물러난 우리 후배들은 불편했습니다. 큰스님은 우리들이 수행을 잘할 수 있는 것은 신도들이 뒷바라지를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큰스님은 경제를 아셨던 것 같습니다."

"동암을 금봉암이라고 했습니까."

"각화사 서암에서 동암을 보면 봉황이 알을 품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산자락이 봉황이고 암자는 알과 같이 보입니다. 금봉이란 도를 깨친다는 상징입니다. 저녁 햇빛이 비추는 아름다운 동암을 보면 옛 도인들이 자리를 참 잘 잡았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허나 지금 가보면 암자 위치를 그대로 하지 않고 불사를 하여 그윽한 맛이 없습니다. 아쉬운 일입니다."

일행은 현기 스님이 찻잔을 밀치는 순간 약속이나 한 듯 일어섰다. 현기 스님은 두 스님을 문밖까지 나와서 합장하며 배웅했다.

정견 스님은 상무주암 앞에 자라는, 혜암 스님이 심었다는 30년생 소나무들을 보더니 잠시 걸음을 멈추었다. 그러더니 상무주암에서 문수암 가는 길로 들어서서야, 현기 스님이 혜암 스님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 중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을 정정했다.

"우리스님께서 신도들을 맞이한 이유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경제적으로 고마워서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신도들을 데리고 밤새 법문하신 까닭은 어떻게 해서든지 공부를 시키려고 한 것이지, 살림살이를 걱정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계속〉

공부하다 죽어라

조계종 제10대 종정 혜암 대종사의 선기가 살아 있는 수행 도량 원당암에서 '성불'의 길을 닦아 보십시오. 재가자 선수행의 중심도량 원당암은 영가단에 만년위패를 모심으로써 생사가 둘 아닌 도리 속에서 열반적정을 이루는 수승한 원력의 도량입니다.

정진안내

- 철야 용맹정진 매월 1, 3주 토요일 오후 7시 ~ 새벽 3시
- 동안거결제 음력 10월 15일 ~ 1월 15일
- 만년위패봉안대불사 합동천도재
  매년 설날, 중양절(음력 9월 9일), 백중, 추석, 매월 음력 15일(아미타재일)

해인사 원당암 감원 벽산 원각 |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10번지 www.wondangam.org
전화 055)932-7308 / 팩스 055)931-7515